



6면

풍림파마텍, 웨일엔터프라이즈와 미국시장 진출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음 9월 23일) 제361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팡파르' K푸드, 미래 열다

### 세계 25개국 322개사 참여... 글로벌 트렌드 선배 전통 발효식품부터 푸드테크까지 전시·체험 다채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개최한다. '발효, K-푸드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발효를 주제로 한 식품 박람회로, 25개국 322개 기업이 참가하며 발효식품의 글로벌 시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엑스포는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들에게 최신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1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전시 인증을 받은 이 엑스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 엑스포는 전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참가기업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글로벌농생명관, 선도상품관, 해양수산관, 상생식품관으로 구성된 전시장은 다양한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스마트팜 기술, 그리고 도시사 인종 상품 등을 전시하며 지역의 특화 상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14개국 31개사가 참여하는 해외기업전에서는 세계 식품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된다.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혼술상회, 아재포차 같은 감성적인 기획 존과 함께 어린이 뮤지컬, 타악 퍼레이드, VR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

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엑스포는 또한 도내 농식품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주력한다. 코트라(KOTRA)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B2B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운영해 기업들의 온라인 판촉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엑스포는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행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시 부스와 행사 시설 전반에 재활용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푸드트럭에서는 대화용 컵과 생분해 용기를 사용해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다. 이러한 노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를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

25일에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한 바이어들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하고, 하림그룹 산업시찰 투어에 참가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북 농식품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히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한식과 발효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전북은 K-푸드의 미래를 알릴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석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역대급 성과'... 세계한인비즈니스 폐막 | 58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24일 폐회식과 환송만찬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MBN,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동주관하였으며 중소기업부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의 비즈니스 성과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전북자치도 우수상품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개최해 시너지 효과가 컸다. 사흘간 총 2만여 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총 6억3천만 달러의 상담금액이 집계됐으며, 무려 5,800만 달러(한화 800억원 정도)의 실제 수출계약도 체결됐다.

지난 22일 개막 직후부터 피에스비 바이오(주)를 비롯한 전북자치도내 4개 기업이 멕시코 등 4개국 4개사와 600만 달러(약 81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대회 성공 개최의 신호탄을 쏘았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무려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대회에서 기업전시관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 기업인 등 약 3,5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에는 사흘간 1만4,000여명의 구름 인파가 방문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전 대회와 달리,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로 개최되어, 전북 지역의 전통문화를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등 참신한 시도가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만큼, 청년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년들이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추었다.

이번 대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청년인재들은 함께 모여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또한, 이번 대회의 역대급 성과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국내기업, 청년인재가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합

계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마지막 공식행사인 폐회식에서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폐회식에서는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하고, 스타트업 경연대회 시상 등으로 진행됐으며, 환송 만찬을 끝으로 공식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유통센터 등 공동주관기관들의 열정적인 준비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역대 최대의 성과로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15회 전북수학체험한마당'이 오는 26~27일 KBS전주방송총국 시민복지광장에서 열린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함께 즐기며 보고·만지고·생각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또한 수학체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 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 전북수학체험한마당, 26~27일 KBS전주방송 시민복지광장서 수학대회·수학산책 등 프로그램 구성...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식을 높이고, 실력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체험 및 전시부스 △수학대회 △수학산책 등이

다. 체험 및 전시부스에서는 수학체험부스 55개, 키즈부스 2개, 상담부스 및 학부모부스 등 67개 부스가 상설

운영된다. 수학대회는 3인 이내로 구성된 도내 초·중·고 학생 62개 팀이 '수학으로 만드는 친환경 수학놀이터'를 주제로 '수학구조물만들기대회'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수학올림픽 대회도 진행된다. 끝으로 수학산책은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도심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고, 수학원리 탐구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순으로 16명을 선정 운영한다.

과학교육원 조현정 원장은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으로 수학과 만나고, 수학을 즐기며 자신감을 키우는 수학과 친숙해지는 기회"라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체험한마당

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수학체험한마당은 교과서를 넘어 놀이와 게임,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학습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물론, 즐겁고 의미 있는 수학교육을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장산 우화정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내장산 단풍터널

## 단풍명소 내장산

빨강, 주황, 노랑...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단풍잎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랑하는 이와 울긋불긋 단풍 바라보며  
내장산의 정취를 만끽하는 이 가을날...



정읍시 JEONGEUP-SI